

사무엘상 1장 9-18절 말씀

- 09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
그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와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
- 10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
- 11 서원하여 이르되
만군의 여호와여
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
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
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
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
- 12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
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
- 13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
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
- 14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
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
- 15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
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
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
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
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
- 16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
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
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
- 17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
평안히 가라
이스라엘의 하나님은
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
- 18 이르되
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
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